

글순서

여는글 우리, 뭐 좀 할까요!	3
잇다 기획프로그램	6
우리생태지킴지도?!	
전주산책자	
공존의 지혜	
강점으로 인생 디자인하기	
전주DDP	
금암광장 생생모꼬지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전주 시민연극제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영화 속 명화 읽기	
스마트폰 활용교육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콘텐츠 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사업	
우리동네답사기 EP1	26
함께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29
전시공간소소	30
우리동네답사기 EP2	34
맺다 생활문화 동호회	40
나로누림 / 봄봄 / 소리 / 우리사이 / 달하	
어울림 / 황산고전연구회 / 이수 / 오스클럽	
필사적인독서 / 영원함 / 수채화동호회	
바투 / 쿵치타치 / 우쿨로하모니 /	
아리오소플루트앙상블 / 하모니이공일오	
청춘기타 / 여행스케치 / 모두의식탁	
우리동네답사기 EP3	49
하다 교육프로그램	52
보태니컬아트 / 캘리그라피 / 펜화 / 요가/	
하모니카 / 기타교실 / 이모티콘만들기 /	
오!즐거운라인댄스	
우리동네답사기 EP4	56
진북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	59
언론속진북	60
편집후기	62

우리, 뭐 좀 할까요!



한천수
(진북생활문화센터 센터장)

“뭐 할 게 없을까요?”라며 진북생활문화센터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으레 프로그램 안내서를 내밀며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회비는 얼마고...”, 친절함과 관성이 뻗어 나오는 목소리로 응대하게 된다. 하지만 무언가 구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이 안내서는 한계가 많다. 그 중 대략 절반 정도만 프로그램 참여자로 이어지니 센터에서는 내어놓을 메뉴가 항상 고민이다. 그렇다고 강사 지원비가 없는 처지에 강좌형 프로그램을 한없이 개설할 수도 없으니 고민의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24년 진북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주요 키워드로 ‘아지트’ 개념을 가져왔다. 이는 생활문화가 친밀성과 공동체성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기 때문으로, 기존의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문화 활동을 포함하는 구체적 방향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어떻게 친밀성과 공동체성을 프로그램에 녹여 내어야 할 것인가가 사업 구상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올해 두 분야(동호회, 기획)의 몇몇 사업에서 아지트화를 시도해 봤다. 먼저 친목 성격이 강한 동호회를 확장시켜 진북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아지트화’를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10개에서 19개로 늘었으니 상당한 성과를 냈고, 동호회 인큐베이팅 과정 중 중도에 멈춘 동호회를 포함하면 20개로 전년에 비해 두 배가 되었다. 다음 기획 분야 공간지원 사업에서는 연간 20회 지원을 목표하였으나 11월 말 현재 24회가 넘어서고 있으니 이 또한 ‘공간 아지트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 경우는 기존 사업 자체가 없어져 사업계획 당시 구상한 음식 문화를 통한 아지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

앞의 3가지 활동이 ‘찾아오는 생활문화 아지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찾아가는 생활문화 아지트’를 추진하였다. 센터에서 가깝고, 전주 도로의 랜드마크인 금암분수대 광장을 ‘생활문화 아지트화’ 하고자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이끌어냈고 또 신선하다는 등의 성과는 거뒀으나, 후속 활동 필요라는 과제도 떠안게 되었다.

2024년 ‘생활문화 아지트’는 결론적으로 그 유효성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범위가 ‘공간’과 ‘동호회’에 한해 진행되어, 개별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지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5년 진북생활문화센터 ‘아지트’ 프로그램은 기존 성과를(동호회, 공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개별 프로그램, 즉 교육강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중심 프로그램 확대가 아닌, 시민 제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 뭐 좀 같이 할’ 프로그램은 사무국에서 제안하며, 동호회의 경우는 소규모 동호회 활동도 적극 장려하고자 한다.

그래서 진북생활문화센터 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라는 말이 흘러넘치게 듣는 것이 2025년 활동 목표이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문턱 없는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있다 | 기획 프로그램

“

2024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 우리생태지킴지도?!

”



2024년 6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20번 만나고 350명의 친구와 함께했습니다.

“생태탐방도 하고, 디지털드로잉도 배우고!” <우리생태지킴지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배우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5개월 동안 진북동과 노송동 일대를 탐방하며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생물들의 특징과 이름도 직접 알아보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또한, 디지털드로잉 교육을 통해 자신이 탐방하며 느낀 자연의 모습을 캐릭터로 담아냈는데요. 이 캐릭터에는 아이들만의 생각과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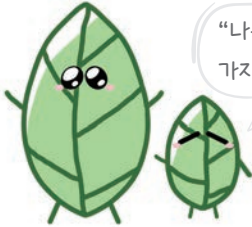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척 불쾌했습니다.”

“지켜야 할 생물들도 많고 쓰레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나는 달맞이꽃 므피야. 나는 해를 싫어해. 왜냐하면 해가 뜨면 나는 다시 잠을 자야 되거든”

“나는 표범나비를 닮은 표비아.
내 매력포인트는 바로 이 날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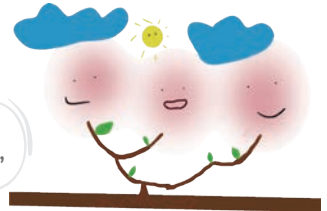
“나는 칠수와 엽수야.
가지치기하는 도중에 떨어졌어.”

“어느 날 범부채꽃을 보고,
다음 날 죽은 병아리를 어루만졌는데
이 둘이 합쳐져 범부꼬꼬가 탄생했습니다.”



“애는 맹공이인데, 간식과 먹는 거를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채소를 싫어하거든요.”

“안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마치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아서 안도리라고 지었습니다.”



“쉬둥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귀엽고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 세상만 경험했거든요.”

“나는 작고 귀여운 버드나무로 다시 태어났어!
돌망돌망하고 말랑한 볼파구가 나의 매력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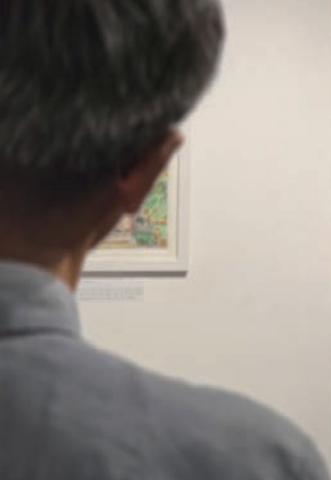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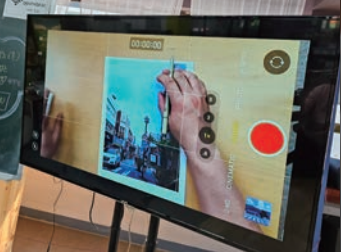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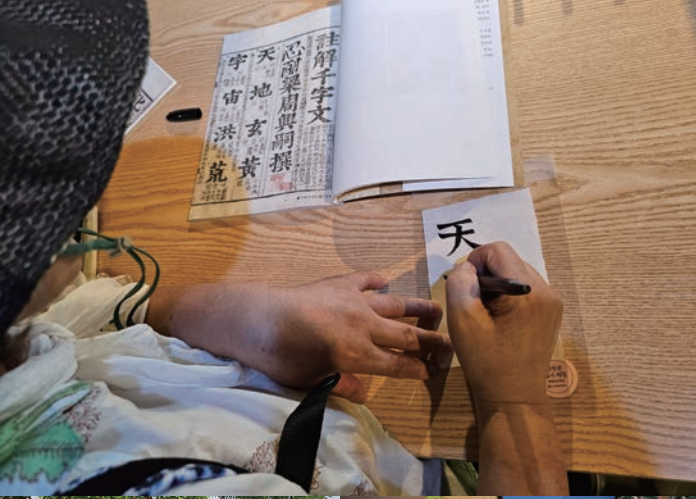


“꽃담배 꽃잎이 원피스같이 생겨서
꽃단비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편의점 앞에서 태어났어.
나를 땅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말아줘.”







“

2024 길 위의 인문학

”

전주산책자

2024년 7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14번 만나고 총 180명이 함께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10대, 20대의 전성기 시절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찬란한 젊음 만큼 미원탑사거리에서 웨딩거리의 불빛도 찬란했더랬지요.”

“이번 전주산책자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그동안 단편적 지식이나

어려서의 추억들이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듯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전주산책자>에서는 도시산책자의 시선으로 도시를 걷고 읽는 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전주의 근대 문화와 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진, 신문, 건물, 영화 등 여러 인문학적 자료와 강연을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주의 거리를 걸으며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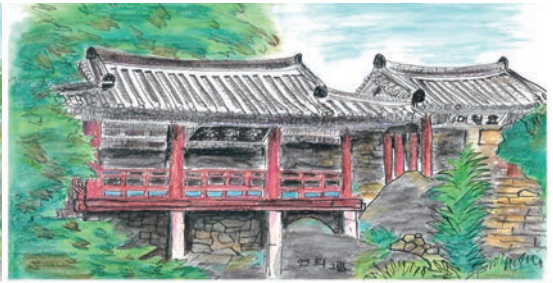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내가 본 전주의 모습을 사진, 글, 영상,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후, 이를 드로잉 작업으로 재구성해 전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7월의 전주산책은, (완판본문화관-전주한옥마을도서관-동문헌책도서관-삼양다방-미원탐터
-다가여행자도서관-전주영화제작소-전주영화의거리)

전주의 책문화와 영화사를 걸어봤습니다. 전주의 삼남극장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조선시대 목판 인쇄술의 3대 책판 중 하나가 전주의 완판본이란 것 알고 계셨나요? 홍지서림과 신아출판사 등 이름만 들어도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곳부터 전주영화의거리까지 영화와 책이 얹힌 전주의 이야기를 함께 걷고 기록하고 읽어보았습니다.



8월의 전주산책은 (오목교-한벽당-남부시장청년몰-청연루)

전주천은 1920년 개통식부터 시작해, 판잣집과 노점이 철거된 뒤 복개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날까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한벽당을 지나 남천교와 청연루까지 거닐며 우리의 시간도 함께 흘러갔고, 다리에 붙여진 이름들과 유래가 품고 있는 뒷이야기도 함께 엿보았습니다.



9월의 전주산책은 (다가공원-신흥고등학교-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근대의료건축단지-엠마오사랑병원)
전주의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걸으며, 건축물 속에서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쳤던 공간에서 뜻밖의 문화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 양식들이 눈길을 끌었고, 아픈 역사가 있는 다가산도 만나보며 역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

2024 지혜학교 공존의 지혜

”

<공존의 지혜>는 서양 사회사상사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인문 강좌로 7월 8일부터 15주 동안 진행됐다. 단순히 사회사상사를 탐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안과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색다른 쾌(快)를 만나다.

“혼자 못하는 공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물어서 해보자.”

“이번 기획에 깊이 있는 책 읽기를 맛보고 싶다.”

“중도 포기 없이 15주 동안 버티는 게 목표다.”

첫 시간, 참여하게 된 동기나 여러 각오 등을 듣고 난 성기석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운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색다른 ‘쾌’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5명 정원인 프로그램의 15주 동안 누적 참여인원은 190명 이었다.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참여했는데 평일 주간에 편성된 이유도 크겠지만 그만큼 중장년층의 인문학 수요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위를 견뎌가며 매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그대로가 성숙한 인간으로 향하는 인문의 실천으로 보였다.

지혜학교는 인문학을 주제로 대학 교양 수준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심화 인문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깊이 있는 인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인문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꾸준히 확산하고자 한다.



2024 지혜학교 '공존의 지혜' -서양 근대 사회사상의 역사 함께 읽기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다.
근대부터 500년의 세월을 단 4개월 안에
읽리한 걸 생각하면 무척 짧게 느껴진다.

굉장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된 기분이다.
사상가들이 각자 지열하게 고민하고 살면서
살에서 도출해낸 결실들을 날로 배워는 덕이다.

-심지어 감사남께서 어렵고
두꺼운 책들도 다 읽어주시고
요약을 통해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내가 한 거라곤 자기재치럼 인을
벌려 달게 먹은 것 뿐이다-

그러나 진짜 알이런 어떤 식으로
가성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적당한 작각 속에서
이 시간들을 걸잡아 살아 나가려한다.



전북생활문화센터의 사실이 마음에 들어서
매주 발길을 향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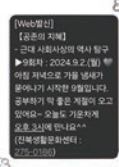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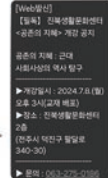


1. 내부가 넓게 탁 트인 느낌을 주고, 깔끔했다.
2. 강의실 옆에는 항상 소규모 전시가 열렸는데,
쉬는시간마다 그 공간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3. 이번 여름에 유독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주셔서 항상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4. 직원분들이 음료와 다과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주셨다.



또한, <공존의 지혜>담당자의 서포트 덕에
더 알차고 기분 좋았던 시간들로 기억될 것 같다.

바치는 날이 있으면 전날 프린트도 챙겨주고, 다정하셨다.
항상 함께 수강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전하기도 했다.
수업 전에 보내주시던 알림 문자를 내용이
사무적인 어투에서 다양한 느낌으로 변한 것도 좋았다.



강의는 주제가 되는 키워드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언어별로 번역된 방식을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뜻과 다른 단어에 있었고
맥락을 듣고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던 단어들도 있었다.

지금은 원래 있던 것만 담던 단어다시피 생각되는 것들도
예전에는 필요와 대응할 현실이 없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이 언어의 역사와 사상의 흐름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 사람들이 살다간 궤적을 조망해볼 수 있다는 게
현대인으로서 누리는 큰 혜택이고 행운 같다.

공존의 지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저마다 파낸 아이디어가 다르고,
그 의견의 가치에 대한 평가나 선호가 다르다.
나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관계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한 결로 지혜롭기도 정말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공구는 이상도 풀이가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과의 한데
모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체로 여전히 비극이다.

각자 태어난 시대에서 운이 좋은 사람은 성취하고
운 나쁜 사람은 좌절하며 살아가야했던 운명도 알았다.



나는 사실 사상이란 단어를 무서워했다.
주로 '불온사상', '사상검열'이란 용어들이 떠올랐고
억압과 탄압의 이미지와 당당히 맞서싸워는 듯 했다.

지금 생각하면 순진하고 겁도 없었던 생각이지만,
내게 작품이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었기에
괜히 그 안에 잠몰아 생각 여지를 만들 매체지가 담겨있길 바랐다.

이제는 모든 창작물이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만든 사람의 생각이 깃들지 않은 창작물이란 없기 때문이다.
강요에서 들었던 책들과 언어들을 기초로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서 내 주관을 보다 뚜렷하고 견고하게 빚어내고 싶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내가 의지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감행하지 않고 발표해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공구는 게 얼마나 될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견디는 관계가 건강하고 바람직하다.

토마스 만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옛사람이 이상하게 오래 울림을 주었다.
다른 사상가들 비중에 비하면 지나가듯 언급된 정도의 인물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는 걸 부르고 권위에 저항하던 기개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제대로 살다간 것 같은 삶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2024 전주시 모두배움터 강점으로 인생 디자인하기

”

시즌1 2024년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12번 만나고 119명이 함께했습니다.
시즌2 2024년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12번 만나고 86명이 함께했습니다.



강점으로 인생디자인하기란?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언제 행복할까요? 나를 이해하는 과정은 성장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강점 피라미드를 쌓고, MBTI와 스트레스5 검사를 통해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배워나갔습니다. 이는 나다운 삶을 찾고,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는 과정이었죠. 강점으로 채워진 내 삶을 디자인해 보세요!



“지금도 이 꿈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요
아직 이 꿈을 못 잊었나 봐요”



“농사를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밴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 우리 농장에서 밴드 공연하는 거 어때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이야기할 때”
 “손주들을 웃길 때”
 “아기가 나한테 뽀뽀해 줄 때”



우리는 모두 25개의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발휘하느냐, 덜 발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감사라는 강점은 과해도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내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모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내가 기억되고 싶은 삶은?
 “당신은 아이들을 잘 키워낸 부모입니다.”
 “당신은 전문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함께해 준 사람입니다.”



“12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이고 소심했던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고,
 만나고 그런 순간들이 새롭기도 하고,
 앞으로의 나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더욱 감사하다.”

“ 20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전주DDP(Digital Drawing Project) ”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10번 만나고 총 122명이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전주DDP> 전주DDP는 전주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디지털콘텐츠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자들은 전주의 로컬 브랜드와 지역 문화 자원을 탐색하며,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갔습니다. 스토리 발굴부터 스케치, 채색까지, 각자의 아이디어와 개성을 반영해 전주라는 지역을 캐릭터, 이모티콘, 굿즈, 인스타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주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만든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했는데요.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캐릭터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재미와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게 10주를 채웠어요. 특히 중간중간 특강이 캐릭터에게 생명을 입히는 데, 너무 도움 됐답니다. 전주이야기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 같아요.”

이름: MZ부채 합죽선
 성격: 친환경, 초경량, No전기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가능
 스토리: 전주합죽선의 16대손 요즘 부채.
 신날때 신바람부채, 근심걱정날리는 부채
 얼굴가리면 부장님과 야자타임기능까지!

#cead18a #eaded #232424

오늘은 쉽니다

1

전주합죽선16Pro Max

응성응성 수군수군

멍때!

2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
 전주 합죽선

현대인의 일상에도
 특별함을 더합니다

3

탁월한 냉방기능

WIN

내가 지다니...

작고 가벼워서 들고다닐수 있어
 전기 없이도 바람이 나와!
 전기도금이 0원이라구!

4

화려한 댄스기능

부채춤이라니...

멋드러져!!

한 마리 학이 되었어!

까!

5

펼쳐서 내 꿀 숨김 기능

우리 주인 절대 지매!!

후...다행이다..

6

야자타임 기능까지!

김부장! 너무하네...

자네 지금 뭐하는...

주의. 음성변조는 셀프입니다.

7

전주합죽선, 매진 임박!

여보! 어서 부채 주문해

와글와글

1인1부채 보급이 시급합니다!!

2024 진북생활문화센터 특성화사업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지원사업

“

금암광장 생생모꼬지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급작스런 우천으로 중단), 10월 2일 수요일, 10월 23일 수요일, 금암광장에서 3번 행사를 계획했으나 2회 진행, 전주시민들과 즐거운 모꼬지를 함께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교육부터 체험부스 진행까지!

2024 금암광장 생생모꼬지



진북생활문화센터 연극동호회
나로누림 강석홍, 최길순님의
멋진 사회로 생생모꼬지 시작~

공연팀



하모니카의 감미로운 선율과
우쿨렐레, 기타의 음색이 어우러
진 공연부터,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긴 풍물과 전통춤까지!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금암광장 생생모꼬지는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체험팀



귀염뽀짝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한
지구사랑 실천체험!
천연 수세미 만들기부터, 버려진
종이를 활용한 씨앗종이만들기
까지 해보았습니다.
탄소중립 교육까지 더해져,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전시팀



진북생활문화센터 펜화 동호회의
특별한 작품 전시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현장스케치까지 펼쳐졌습니다.

“ 제18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스무살 평생학습도시, 세대를 잇다 ”

2024년 9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진 평생학습한마당에서
전주시민들과 진북생활문화센터가 함께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펜화동호회 ‘여행스케치’와 함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전주시민들에게 펜드로잉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초급과 중급 샘플을 준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며 활기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분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모두 즐거움을 만끽하셨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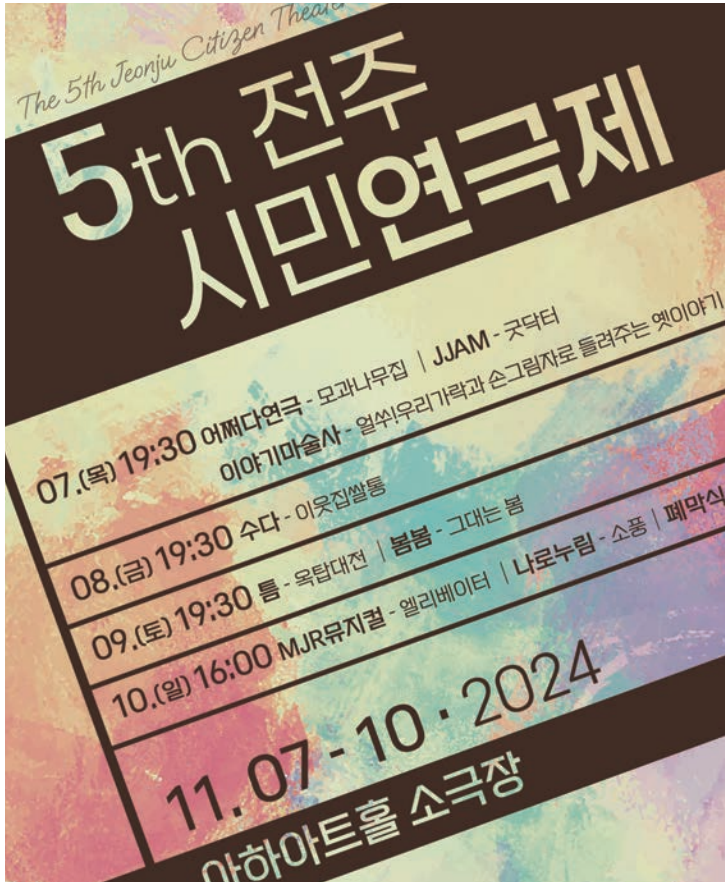
뿐만아니라 동아리 열전에서는 진북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어울림우리춤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연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제5회 전주시민연극제

“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창작극부터 인형극, 뮤지컬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다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아하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연극동호회 8팀이 전주 시민을 관객으로 맞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 2024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생활문화센터와 직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종사자들이 진북 생활문화센터에 모였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서로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협업과 건강한 소통을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 시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지역 내 탄소중립 정책을 돌아보며, 실천 가능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코칭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물론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의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 제8회 전주시 인문주간_전주, 인문학으로 품다 ”

영화 속 명화 읽기



제8회 전주시 인문주간 특강 <영화 속 명화 읽기>는 영화 속 명화를 통해 본 사람과 삶, 그리고 예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했다. 센터에서 미술사 관련 인문 프로그램을 도맡아 주셨던 장운채 강사와 함께 영화 ‘뮤지엄 아워스’에 나오는 명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강에서는 영화의 주무대가 되는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이 만들어진 배경과 유명 컬렉션인 브뤼겔의 작품을 중심으로 플랑드르 회화, 루벤스의 삼면화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루벤스의 삼면화<십자가에서 내림>은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와 파트라슈가 죽음을 맞이하던 장면에서 등장했던 삼면화를 연계해서 설명해주니 특강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

특강 전에 숙제하듯이 본 영화를 특강이 끝난 후에 천천히 다시보기 하겠다는 소감들이 이어졌다. 농촌 장면이 보이고, 인물들의 이야기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그림이 더 잘보이더라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고 시야가 확장되는 인문학의 세계, 우리, 인문학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

2024 슬기로운 전주생활 스마트폰 활용 교육

”

2024년 11월 22일, 25일, 29일 총 3일간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니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11월 22일에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길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시내버스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방법부터 카카오택시를 호출하고 결제하는 방법까지 교통수단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25일에는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쉽게 수정하는 법, 나의 현재 위치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법,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하는 법 등 카카오톡을 더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이제 필수가 된 모바일 신분증! 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기술을 배워 더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센터는 오늘도 환하게 안녕하다 ”



우리 센터는 매년 효자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고 노인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효자시니어 클럽에서 파견한 어르신 두 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센터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받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2024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사업 기다리던 잡지 왔송~ ”



(사)한국잡지협회에서 지원하는 우수콘텐츠잡지 10여 종이 매달 중순쯤 배송된다. 지역문화, 경제, 예술, 인물, 문학, 원예 등 다양한 콘텐츠의 잡지가 전용 서가에 비치되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오래된 잡지는 필요로 하는 곳에 무료 나눔 한다. 지난 달에도 센터 이용자께서 작품제작에 필요하다고 한아름 챙겨가셨다.

[우리 동네 답사기 EP 1] 지천에 널린 봄과 함께 걷기

센터에서 가까운 '만나요 셀프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요사이 밥값이 500원 올라서 6,500원이다. 대파 한단이 875원이었으면 식당 사장님은 500원을 내렸을 지도 모른다. 한끼에 6,500원이라니, 가성비 만큼은 매우 훌륭하다. 혼밥하기에도 괜찮아서 행정고시학원의 공시생이나 주변 상가 단골들이 많아 보였다. 단, 메뉴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오늘은 카레, 부대찌개국, 팔죽이 나왔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나와서 신중앙시장 쪽으로 길을 잡는다.



전주시노인회관 주차장 들머리에는 조록조록 하얀 조팝꽃이 피었다. 아스팔트 포장을 겨우 면한 은행나무 밑둥치에는 노란 민들레가 촘촘히 자리 잡았다. 그야말로 만화방창. 건물 밖으로 나서면 사방이 봄, 봄, 봄, 꽃, 꽃, 꽃이라 꽃보며 호들갑 떨기도 민망한 4월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꽃보면 흐뭇하고 눈꼬리가 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쁜 것들은 여러 번 보아도 좋다.

진북광장 교차로에 서서 초록신호등을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본다. 건너편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시계탑이 있는 전주시온성교회가 보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태평동에서 1986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고 한다. 묵직한 직각의 외벽 때문인지 성벽 하나 없이도 철옹성으로 보인다.



진북광장에서 중앙시장 방향 팔달로와 학생회관 방향 안덕원로 사이에 낀 노송여울길로 들어선다. 노송여울길이라니 보드라운 실개천이라도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길 들머리에는 '만원행복거리'라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어머나, 이 안에 전구가 있네. 이거 불 켜지는 건가 봐요!” 유팀장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 나는 그런 팀장 구경이 더 재밌다. ㅎ 그런데 암만 봐도 조형물의 뜻을 잘 모르겠다. 네온이 켜지면 이뻐지긴 한다. 그 색감이 행복과 닮았나? 고개를 갇웃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봤을 때는 공구거리에 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아무래도 직관파인 듯.

“센터장님, 여기 처음 와 보는데, 공연장도 있고 좋은데요, 좀 썰렁해요.”

“좀 썰렁한 게 아니라 많이 썰렁하지.”



동네 해설사를 자처한 센터장님 말에 따르면 전주시가 생태하천을 복원하며 콘크리트를 걷어낸 노송천의 복원구간과 상가지역 일대를 묶어 만원행복거리로 지정했다고 한다.

복원구간의 상권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만원으로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한 것. 초창기 모습은 본 적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근래 이 거리를 보며 음식특화거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 싶다. 음식점보다 공업사, 철물점이 많아 보이고 폐업 후 새 임자를 찾지 못한 빈 점포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게다가 전주비빔밥 한 그릇이 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거리 이름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십여 년 전에 만 원이었으면 지금은.....음.....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는 노송천은 멀리서 보아도 그럴싸하다. 가까이 가보니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에는 골치개나 아플 것 같다. 하천 바닥에 낀 오염물도 긁어냈으면 좋겠고 상가에서 새어나와 섞이는 오수도 틀어막았으면 좋겠다.

하천의 생태제방에 하늘하늘한 보라색 유채꽃이 고운만큼 안쓰럽게 보인다.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도 수거하고,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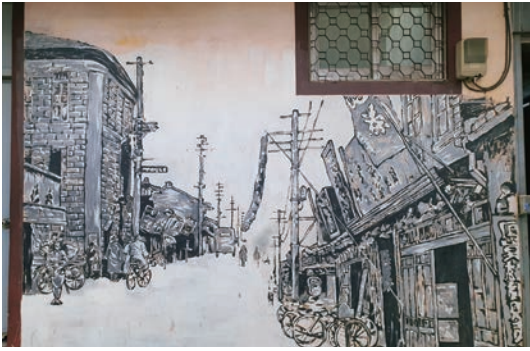


노송여울길을 따라 400m쯤 가다 신중양시장 쪽으로 접어든다. 갑자기 눈앞이 화사하다. 시장 초입에 온갖 봄들이 화분에 심겨 꽃들로 피었다. 봄이 지천이다. 되짚어 돌아오는 길에 화분 사이사이를 거닐며 꽃구경을 실컷 하고 빈 손으로 돌아오며 시시덕 거렸다.

“이쁜 것들이 때로 있으니 쉽게 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잖아.”



전주에는 오래된 전통시장이 3군데 있다. 한옥마을 관광지구와 가까운 남부시장, 전주의 중앙에 자리잡은 신중양시장, 완주 일대의 농산물이 유입되는 통로였던 모래내시장이 3대 시장으로 꼽힌다. 중앙시장은 지리적으로 전주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서 중앙시장으로 불리다가 대규모 개선사업을 거쳐 현대화를 이루며 신중양시장으로 거듭났다. 가림막으로 투과된 자연광만으로도 시장 안이 환했고 보행로도 널찍하고 점포들도 가지런히 정비되어 장보기도 좋아보였다.



시장 골목을 훑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멋진 벽화를 만나게 된다. 우리 유팀장 그냥 못지나가고 불독에게 인사를 건넨다. 신중양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재미삼아 한 번쯤 찾아봐도 좋을 듯싶다.

신중양시장에서 고소한 기름냄새 풍기는 떡골목으로 빠져나오면 코앞에 버스정류장과 중양성당이 있다. 떡골목은 시장 안팎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지름길로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통로다. 떡골목 안에는 떡집, 분식집, 김구이집 등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사철 따순 기운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떡골목에서 나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걸으면 전주 중양성당을 숙 지나치기 쉽다. 성당 앞길에는 노점과 상가가 줄줄이 잇대어 있어서 겨우 성당 출입구만 빼꼼하기 때문이다.

중양성당은 전주에 전래된 천주교가 전동성당을 기점으로 점차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1933년 비석거리(예전에 태평동 공복정터 일대에 비석이 많아서 비석거리라고 불렀다고 함)에 신축된 공소로 시작하여 1956년 전주교구주교좌본당으로 건립되었다고.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고딕양식의 이 건축물은 2023년에 전북등록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중양성당에 가보면 부지가 매우 좁고 부속건물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안타까운데, 전동성당처럼 뜰만 조금 더 넓적했어도 그 위상이 달라졌을 것만 같다.



중양성당에서 나와 시내 북문방향으로 팔달로를 따라 건다가 타워빌딩 앞에서 대동로를 따라 우회전한다. 여기서부터는 공구거리가 이어진다.

공구거리는 오만가지 공구, 조명, 철물들을 취급하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센터에서 조명등이 필요하거나 철물이 필요할 때 단골로 찾는 상점도 이곳에 있다. 물건들의 이름도 생소하거나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암튼 집안의 경미한 공사나 수선에 필요한 어지간한 물건들은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다.

센터장님과는 공구거리 조형물 앞에서 헤어졌다. 센터장님은 회의가 있어서 팔달로를 따라 회의장소로 이동하고 우리는 공구거리에서 다시 신중양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구거리도 다 훑고 싶었으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답사라서 센터로 호다닥 복귀.

지도에 돌아다닌 길을 찍어보니 신중양시장 안에서 여기저기 기웃대던 발걸음을 빼고도 2.8km를 걸었다. 음... 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잘 모르겠지만 4월이 시작되는 봄날, 빈손으로도 충분히 좋은 마실길이었다.

(박진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종종 회원들과 밥을 함께 먹게 된다.

계절이 바뀌었다고, 함께 해서 고맙다고, 건강하게 또 본다고, 김장을 했다고.....

역시 밥을 함께 먹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 짧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각자의 시간을 쪼개는 배려, 다른 이의 앞으로 슬쩍 밀어주는 관심,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다움, 머문 자리를 정리하는 손길의 수고로움까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과 음식을 나누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센터에서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쌓여서 삶이 풍요로워진다면 더없이 좋겠다.



2024 진북생활문화센터 공간지원 사업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연 전시공간 소소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전주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시공간소소에서 27회의 전시가 열렸으며 총 112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2024.1.22.~2.12.
최지영 개인전 '꽃으로 온 그대'



2024.2.13.~2.27.
오영석 개인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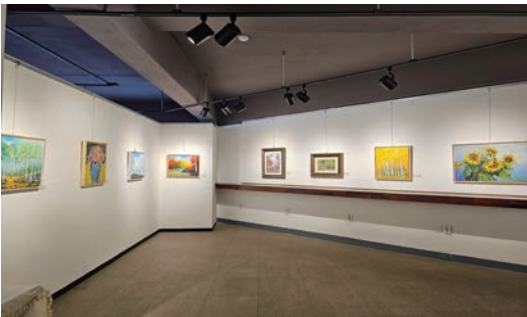
2024.2.28.~3.17.
김승호 '유묵전'



2024.3.18.~3.31.
윤혜정 개인전 '영원한 순환'



2024.4.1.~4.14.
오목오목그림동아리 단체전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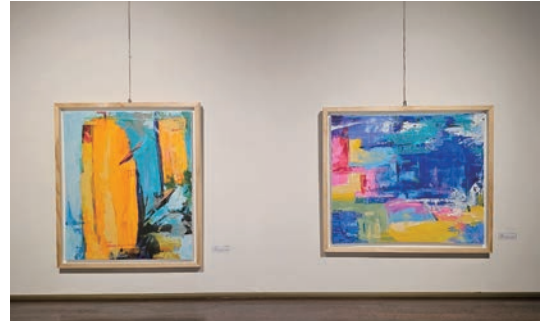
2024.4.15.~4.28.
장지연 개인전 '아이스크림'



2024.4.29.~5.12.
우리끼그리다 단체전 '우리끼그리다 다섯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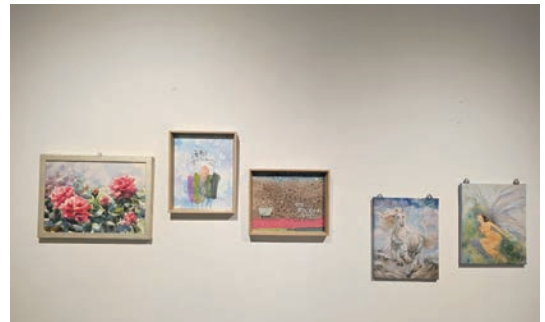
2024.5.13.~5.26.
황금희 개인전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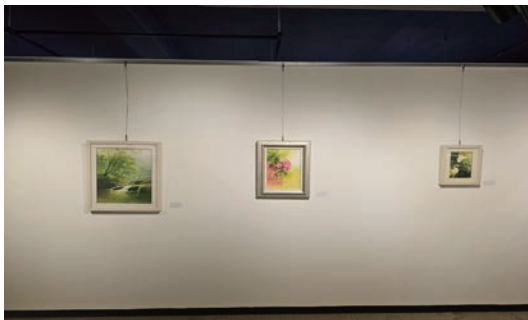
2024.5.27.~6.9.
선우 단체전 '아름다운동행'



2024.6.10.~6.16.
우호전 단체전 '다채로운시선'



2024.6.17.~6.23.
색오름 단체전 '색오름 수채화전'



2024.6.24.~6.30.
박병대 개인전 '흐름'



2024.7.1.~7.9.
김민희 개인전 '홍홍기원전'



“저는 우리가 각자 소망하는 마음들을 광물이라 여기고 그 소망들이 모여 이룬 단단하고 견고한 행복을 돌이라 여깁니다. 이렇게 행복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2024.7.10.~7.21.
여행스케치 단체전 '제 1회 동호회 회원전'



2024.7.22.~8.4.
시문화아트 단체전 '공감 그리고 소통'



2024.8.5.~8.14.
야데릭 알바마시아스 개인전 '웰컴투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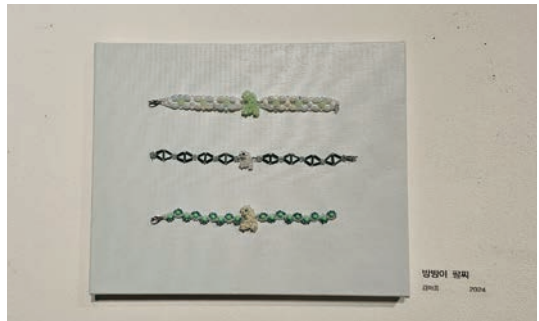


"예술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전달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세계 역사의 확실한 증거적 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알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내 예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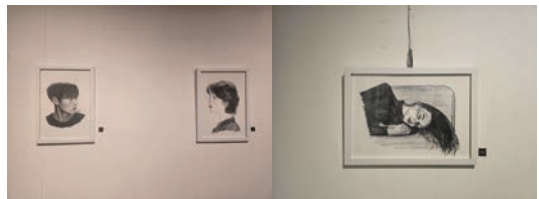
2024.8.15.~8.25.
故 김승호 작가 1주기 추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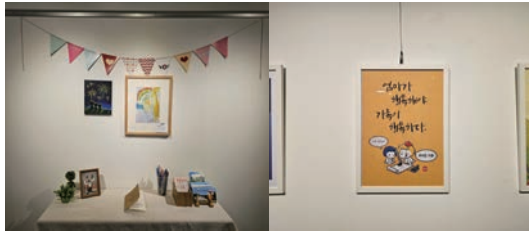
2024.8.26.~9.8.
김아름 개인전 '아름있다'



2024.9.9.~9.29.
진 개인전 '어떤 얼굴들'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을 가장 투명하게 담아내는 창 같아서 매번 흥미롭고도 어렵고 또 그래서 재밌습니다."



“2024년 10월 5일은 나루몽이 꼭 10살이 되는 날입니다. 어린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또 저의 성장을 기록하며 두근거리는 제 첫 전시를 이곳에서 나누려 합니다.”

2024.9.30.~10.6.
양인영 개인전 ‘어디든 괜찮아 너와 함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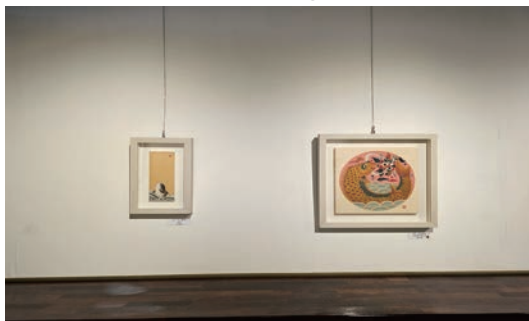
2024.10.7.~10.17.
박현옥 박현진 어반스케치전 ‘일상을 여행처럼’



2024.10.18.~11.3.
2024 길 위의 인문학 ‘전주산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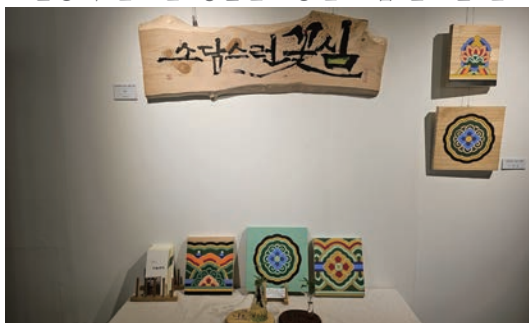
2024.11.4.~11.15.
유은실 이로미 트윈전 ‘농도와 로미코코’



2024.11.16.~12.8.
2024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 ‘우리생태지킬지도?!’



2024.12.9.~12.16.
다울공작 단체전 ‘생활문화공간 사업 결과물 전시’



2024.12.17.~12.31.
신진철 개인전 ‘고군산의 섬섬섬’



[우리 동네 답사기 EP 2] 남도주유소에서 만나요!

“다음 주 음식동호회 모임 금암면옥에서 12시에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데 금암면옥이 어디에 있어요?”

“남도주유소 뒤에 있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까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오세요.”

지난 목요일 센터 음식동호회에서는 <오선모 김밥 따라 하기>를 진행하였고, 후속 모임으로 전주 맛집 현장투어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동네 답사>는 맛집 사전답사를 겸해 남도주유소 주변으로 답사 장소를 선정하였다.



<남도주유소 가는 길>

4월 전주는 온 천지가 꽃이다. 개나리, 조팝, 벚, 철쭉, 각종 과실나무 꽃들과 여러 풀꽃들이 거리며 산이며 집이며 들어차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월요일 사전답사를 출발하며 첫 번째 만난 꽃은 향기의 제왕인 하얀 라일락이다. ‘수수꽃다리’라고도 불리는 라일락으로 센터 앞 원광신희 주차장에 그 진한 향기를 퍼뜨리며 답사객들의 발걸음을 한동안 붙잡았다.

신희 골목 지나 모퉁이를 돌다가 만난 방치된 화분에는 냉이꽃이 머리를 한껏 들어 올리고, 도로변에 심어놓은 키 낮은 보라색 라일락이 차들의 흐름에 따라 고개를 한동안 끄덕 거린다. 어디랄 것도 없이 지천에 퍼진 노란 민들레꽃 그리고 그 하얀 씨앗들은 지나는 이에게 입바람을 머금게 만든다.

금암분수대에 이르자 새하얀 가침박달나무 꽃이 단단하게 줄기를 붙잡고, 화살나무는 좁쌀 같은 황록색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하였다.

팔달로에 들어서자 새마을금고 길가 화단에는 자주색과 백색 꽃잔디가 폭신한 카펫처럼 깔려 있는데 그 강렬한 색의 조화는 멀리서부터 눈길을 끌어당긴다.



천천히 꽃구경을 하다 남도주유소 앞 신호등에 이르면 세월 깊숙이 자리한 빛바랜 우체통이 10m쯤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남도주유소>

‘남도주유소’, 문 닫고 없어진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전주사람들에게 남도주유소는 기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남도주유소를 본 적이 있든 없든, 이용한 적이 있든 없든, 전주사람들은 남도주유소를 약속 장소로 정하는데 크게 주저하지 않았다. 가끔 전주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남도주유소라는 기억의 공간을 은연중 끌어내어 각인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낯설지 않은 기억의 공간, 나에게도 타인의 추억이 전이되는 지명 몇 개가 전주에 있다.



30여 년 전 사라졌다 최근 다시 만들어진 ‘금암분수대’, 지금은 아중리로 옮겼지만 예전 동부시장의 약속 장소 ‘조약국사거리’, 팔달로 중앙시장 북쪽에 위치했던 전주에 흔치 않았던 ‘육교’, 팔달로 전북 은행 본점 앞 경원동 ‘미원탑’, 오목대와 향교 사이에 위치한 교통 ‘쌍시암(쌍샘)’ 등이 그렇다.



※ 예전 남도주유소가 있던 자리에 새로 들어선 파리바게뜨
금암면옥 위 옛 남도주유소의 명칭이 일부 남은 당구장이 있다.

<맛있는 금암동>

평일 남도주유소 주변엔 생기가 돈다. 이곳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매우 경쾌해서 어떨 때는 그 발걸음에 맞춰 식당을 따라간 경우도 있었다. 하기가 남도주유소 주변 식당 대부분이 다 맛집이라 딱히 어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늘 사전답사 맛집은 호불호가 별로 없는 <금암면옥>이다. 성심여고 앞 <베테랑>과 거의 맛이 같다고 해서 전주사람들은 번거로운 한옥마을에 가느니 이곳을 찾는 경우도 많다. 이집 주메뉴는 칼국수, 쫄면, 만두이고 그 외 비빔밥이나 돈까스 같은 메뉴도 있다.

<금암면옥>을 나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금암순대>가 나오는데, 이 집은 순대를 좋아하는 전주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리는 항상 만석이다. 주메뉴는 순댓국과 뼈다귀탕이다.



<금암순대>를 나와 더 위쪽으로 가면 <금암소바>가 나온다. 이 집도 워낙 유명한데, 지금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식당이 좀 넓어졌지만 소바 철이 되면 여전히 줄을 길게 서야 겨우 맛볼 수 있는 집이다. 주메뉴는 소바와 콩국수 그리고 냉면이 있다.

<금암소바> 맞은편에는 <쌈가>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름이 말해주듯 쌈밥 전문점이다. 외지인보다는 전주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으로 쌈이 매우 신선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식당이다. 주메뉴는 쌈밥정식과 제육쌈밥이다.





<쌈가>를 나와 방향을 전북대 신정문 쪽으로 돌리면 초밥집 <도꾸이>가 나온다. 이 집을 가본 적이 없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같이 답사를 나온 사람이 적극 추천하는 맛집이다.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은 데다가 맛도 일품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주메뉴는 모듬초밥과 연어초밥이다.

<도꾸이>에서 전북대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약선 식당 <감로헌>이 나온다.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밥을 제공하는 식당이다. 모든 음식에서 약초 맛이 배어 있어 건강해지는 느낌을 주는데, 내 경우는 주로 손님을 접대할 때 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였다. 주메뉴는 약선밥상과 정식이 있다.

<감로헌> 모퉁이를 끼고돌면 <정둔면옥>이 나온다. 국시 전문점으로 각종 TV나 신문에 자주 많이 맛집으로 소개되어 외지에서도 유명하지만, 맛과 양 그리고 가격 등 가성비가 좋아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다. 닭곰국시가 많이 알려졌다지만 일반국시인 물과 비빔도 유명하다.



<정둔면옥> 옆집엔 이 근처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정주분식>이 있다. 정주분식 특징은 전통적인 음식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새알팔죽과 팔칼국수는 팔의 맛을 최대한 살렸고, 칼국수와 수제비는 멸치육수의 깔끔한 맛을 살려 기본에 충실한 음식을 제공한다. 메뉴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대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해서 양도 적당히 많은 편이다.

남도주유소 근처 맛집 답사를 마치고 옛 전주KBS (현 천년이지움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거북바위'로 향했다. 가는 길은 차들과 얽혀 번잡해지는 것이 싫어 일부러 골목길을 선택해서 천천히 걸었다.

골목을 조금 건다가 <금암1동사무소> 주차장에 놓인 기차를 마주쳤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곳이 예전 1981년까지 기차가 다녔던 철도 부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기차 조형물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권삼득로>와 <조경단로>가 만나는 사거리 (옛 KBS사거리)에 이르자 네 귀퉁이 전봇대에 의자가 하나씩 매달려 있다. 누군가의 배려인지 어르신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좀 쉬었다 가시라는 그 마음이 전주의 봄꽃처럼 환하게 다가온다.



사거리를 지나 언덕배기 옆 계단을 오르면 <거북바위>가 우리를 반긴다. 거북바위 안내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거북바위로, 후백제 시기 만든 인위적 조형물로 전주 4방위의 북쪽을 맡는 '현무'라 한다. 안내문에 근거 문헌을 제시해 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풍수와 정말 가깝게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멀리 한양 천도까지 찾지 않더라도 전주에서만 봐도, 북쪽의 기운을 막기 위해 뾰다는 덕진호 이야기, 일제가 조선왕조의 맥을 끊겠다고 오목대와 이목대 사이에 났다는 철로 이야기, 또 용머리, 진복사, 숲정이 등과 얽힌 이야기 등등.

그런 의미에서 <거북바위>라는 인위적 조형물이 어쩌면 전주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위치로 자리 잡은 듯 보인다.



거북바위에서 내려와 금암동 주택지를 거쳐 금암도서관으로 가기로 했다. 이 주택지는 1970~80년대 전주가 부도심 지역 개발과 확장 시기에 들어섰을 때 집들이 언덕까지 밀고 올라와 형성된 공간이다. 당시 전주 인구의 평균 연령이 젊었을 때 이곳은 골목마다 아이들과 학생들로 항상 북적거렸던 동네이면서 마을이었다.

우리는 그 골목길에 있는 집집마다 서로 다른 담벼락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담벼락의 변천사를 유추하며 걷는 것이 답사에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도 인적이 거의 없다. 대충 봐도 옆에 일곱여덟은 빈 집이다. 그나마 사람이 사는 집도 관리가 되지 않아 동네 전체가 한참 전에 다들 떠난 것처럼 보인다.

언덕 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그림자가 이 동네에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 오늘 답사의 후반부는 도시의 그림자 속을 걷는 일이 되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단장한 금암도서관이 반짝 거린다.

(한천수)



2024 진북생활문화센터



맺다 | 생활문화 동호회

나로누림 (연극 동호회)

연극을 사랑하는 생활문화인들의 모임. 올해 2연속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본선에 진출하는 기쁨을 토했다. 일상을 연극처럼, 연극을 일상처럼 누리고 사는 멋진 모습을 늘 응원한다.



봄:봄 (연극 동호회)

‘나의 따뜻한 봄을 다시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아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작지만 맵찬 동호회. 제5회 전주시민연극제에서 <그대는 봄>으로 전주시민과 만났다.



소리 (풍물 동호회)

갠지갱~ 팽과리가 선두에 서고 장구 장단과 북, 징이 묵직하게 울리며 합세하는 풍물 동호회.
잔치마당에 흥을 돋우기엔 풍물만한 것이 없다. 금요일 1시면 지화자~ 추임새에 맞춰 흥겹게 쏟아지는 장구 장단이 경쾌하게 울린다. 장구 기본장단만 칠 줄 안다면 누구나 환영.



우리사이 (밴드 동호회)

아직 미완성인 밴드 동호회. 보컬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끼리 즐겁게 노래하면 되니까.
연습실을 만들기도 어렵고 맘대로 연주 연습을 할 수도 없을 때 진북생활문화센터 문을 두드렸다.
와~ 우리도 이제 마음껏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신난다. 심지어 넓다. 열심히 연습하자!

달하 (가야금 동호회)

가야금 전공자가 이끄는 가야금 연주 동호회가 가을부터 겨울 초입까지 활동했다. 국악기인 가야금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일상에서 접하기 쉽지 않았는데 동호회 활동 덕분에 가야금 연주와 병창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어울림 (우리춤 동호회)

전통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춤 장수체조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가꾸는 어르신들의 모임. 틈틈이 복지시설 공연 봉사활동도 다니고 전주시평생학습한마당 축제와 생생모꼬지 무대에도 올라 멋진 춤사위를 선보였다.



황산고전연구회 (동양고전 학습동호회)

한문으로 쓰여진 옛글을 읽는 공부 모임이다.

동양고전을 연구하는 학습 모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옛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즐겁게 공부한다.



이수 (독서 동호회)

독서토론 보다는 느슨한 책읽기 모임이지만 어떻게든 책은 꼭 읽겠다는 굳은 의지로 굴러가는 장수 동호회. 여름까지 7년 동안 센터에서 활동했고 센터 밖으로 나가서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소식 들린다.

O's club (영어 동호회)

슬기로운 영어생활을 추구하는 중급 이상의 생활영어 학습 동호회.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영어 공부가 재미인 왕언니들이 모여 수다 반, 공부 반.



필사적인 독서 (독서 동호회)

매일 한 줄이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사람, 나만의 독서노트를 만들고 싶은 사람, 마음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필사적으로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하는 동호회.



영원함 (영어원서 읽기 동호회)

번역 작가와 함께 영어원서를 읽으며 생각을 나누는 어른들을 위한 북클럽. 남들이 어떻게 하나 듣고만 와야지 그런 건 없다. 회원이 돌아가며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내용과 감상을 나누는 세미나 형식을 지향한다.



수채화동호회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오래 들었던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동호회. 센터에 나와서 작업을 하면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그림 그리는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시간이라고.

바투 (미술 & 공예)

그리고 만들고, 손으로 하는 미술 활동 전반을 넘나드는 동호회. 틀에 박힌 활동보다 여러 활동을 즐기는 동호회다. 올해는 주로 아크릴화를 많이 그렸고 센터에서 주관한 생생모꼬지 체험부스도 운영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콩치타치 (드럼 동호회)

콩콩치치!! 두구두구두구두구~~~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모든 감각기관을 총 동원하는 드럼 연주가 처음부터 쉬울리 없지만,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는 법. 동호회원들의 스틱을 따라 역동적인 드럼 비트가 힘차게 날아오른다.



우쿨로하모니 (우쿨렐레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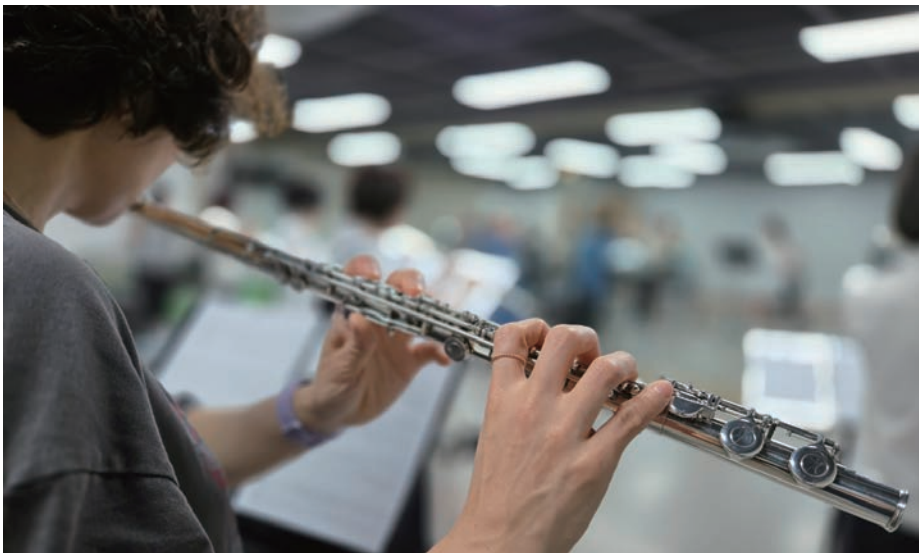
혼자만 잘하면 뭐하나, 함께 나누고 즐거워야지가 모토인 우쿨렐레 연주 동호회.

우쿨렐레 연주 실력 중급 이상자로 성실하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연 봉사 활동에 긍정적인 분들을 환영한다. 올해 금암광장에서 있었던 생생모꼬지에서 좋은 연주를 들려주셨다.



아리오소 플루트 앙상블

플루트 연주 연습과 회원 교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동호회. 대부분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쁜 시간 틈을 내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실력을 갈고 닦아 정기 연주회도 하고 공연 무대에도 서고 싶다는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모니 이공일오 (중창단)

사람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동호회.

2015년에 창단된 여성 중창단으로 가을의 시작과 함께 센터에 둥지를 틀었다. 회원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엔 더없이 멋지다.



형준기타 (기타 동호회)

수업시간 말고, 집에서 말고, 혼자하면 심심하고. 그래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컷 연주 연습을 하고 싶어서 기타교실 수강생들이 만든 통기타 연주 동호회. 맘 먹고 연습하니 공연도 하게 된다. 지난 가을 금암광장에서 멋진 기타 연주로 사람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여행스케치 (펜화 동호회)

처음엔 센터에서 펜화반 과정을 마친 수강생 여덟 명으로 시작한 동호회였다.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서로의 그림에 엄지 척, 응원을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즐겁게 만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여기저기에서 합류해 회원이 배로 늘었다.



모두의 식탁 (음식 동호회)

같이 음식도 만들어 보고 음식문화도 탐구하고 탐방도 하고. 짧지만 알차게 3개월을 보낸 음식 동호회. 냉이로 봄을 요리하기, 초간단 간식 콘치즈모닝빵 만들기, 오선모김밥 따라하기, 금암면옥부터 거북바위까지 전주 명물 음식점 탐방, 오독오독 오란다 강정 만들기, 카톡으로 우리 집 반찬 자랑, 냉장고를 부탁해... 언제 또 만날까요?



[우리 동네 답사기 EP 3] 서학동의 봄날

“여러분의 서학동은 어떤 느낌인가요?”



전주전을 사이에 두고 남천교를 건너면 한옥마을이 마중 나와 있고, 길가를 따라 걸으면 남부시장의 따뜻한 정감이 반겨주는 이곳. 서학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함 속에서 예술의 숨결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과거 교사와 학생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선생촌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주거시설이 낙후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음악을 하고 글을 쓰는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고 창작활동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화가, 음악가, 도예가, 사진작가 등의 예술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작업 활동이 이어지며 자연스레 예술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가요? 서학동은 거리 하나하나에 놓인 의자와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예술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월의 흐름을 한꺼번에 머금은 예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져 공간 어느 곳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쓴 예술가들의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안녕? 반가워



나도 한번 올라타 봤어. 구름정원까지 날 데려가 줘.



햇볕에 빛나는 타일들이 내 마음속에서도 반짝인다

서학동은 참 편안한 곳이에요.

1980~1990년대 옛 골목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에는 오래된 떡집, 쌀집, 이발소와 같은 정겨운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와 공방이 함께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작업 풍경을 넘볼 수 있는 공방, 감성 가득한 카페, 환경을 생각한 비건요리 식당과 제로웨이스트 가게까지, 골목골목마다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안녕? 내 집은 작은 벽돌이야.

최근에는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건물을 보면서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했었는데, 팽나무동과 담쟁이동이라는 2층 건물 두 개를 개조하여 만든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술마을도서관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는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예술 관련 서적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 60여 점도 전시되어 있어 예술적 분위기를 더합니다.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는 CD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잠시 햇빛을 받으며 ‘I will always love you’를 듣고 있었죠.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책을 읽으며 바라본 담쟁이덩굴과 팽나무가 어우러진 야외정원이 참 예뻐합니다. 나의 지친 하루를 위로받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저에게 서학동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하고 여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서학동은 어떤가요??”

(유정연)



하다 | 교육 프로그램

보태니컬아트 초급과정

색연필로 그리는 식물 세밀화.

보기에도 좋은 꽃이나 식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특징을 살려 아름답게 그려보는 과정 속에서 그림 실력과 함께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쑥쑥



캘리그래피 기본과정+자격증 과정

먹과 붓으로 아름답게 쓰는 감성 글씨.

서체를 익히는 틈틈이 부채, 한지등, 수제 도장도 만들 수 있다. 취미생활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서체를 개발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펜화 기초과정/일반과정/심화과정 3단계운영

펜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매력만점 그림 수업.
때때로 진행되는 센터 밖 수업 외에도 수제 스케치북 만들기, 작품 전시회도 연다.

- 기초과정_선긋기, 사물묘사, 투시기법 등 기본기 중심
- 일반과정_그림 채색기법
- 심화과정_여행을 주제로 펜드로잉



요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수련하기에는 요가만한 것이 없다.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롤링, 앉은 자세, 옆드린 자세, 누운 자세 순서로 1시간 동안 요가 수업이 진행된다.

하모니카 중급과정

크기가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어디에서나 연주가 가능한 하모니카.

연습하면 화음과 선율을 동시에 연주할 수도 있어 더 매력적인 악기로, 센터 회원들은 강사님과 함께 종종 공연 봉사활동을 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다.



기타 초급과정/중급과정

기타교실은 초급반의 연주 실력이 쌓여 중급반과 통합되었다.

내년에 왕초보를 위한 기타교실이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다.



이모티콘 만들기 [이론+제작+심사 제안까지] 8주과정



이모티콘의 이해, 멈춰 있는 이모티콘 만들기,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 카카오 심사 제안까지 이모티콘 작가 범고래님께 모두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올해 6기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 즐거운 라인댄스 기초과정

남녀노소 누구나 같은 동작을 따라하는 라인댄스는 동작이 어렵지 않아서 건강댄스로 최고다.
라인댄스는 기초 스텝부터 배우고 음악에 맞춰 모션과 스타일링을 하게 된다. 음악에 맞춰 율동하는 동안 마음까지 산뜻해진다.



[우리 동네 답사기 EP 4] 사소한 것들이 기억에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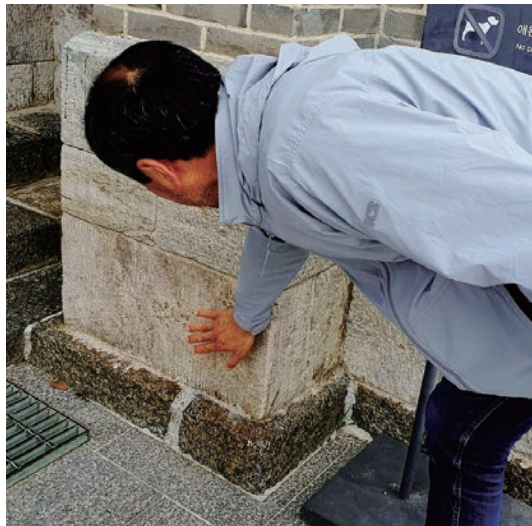
오늘 걷게 될 곳은 한옥마을이다. 사람 많은 곳을 잘 다니지 않는 탓에 한옥마을은 오히려 낯선 곳이다. 전주 사람이면서 한옥마을에 들어서면 나도 외지인과 다를 바 없다.

남부시장에서 갈비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갈비국밥도 좋지만 곁들여지는 보리밥이 마음에 들었다. 국밥을 말끔히 비우고 입가심을 위해 시장 안쪽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산다. 보통은 '뜨아'를 먹지만 오늘은 걸어야 하니 얼음이 재워진 시원한 '아아'를 주문한다.

남부시장에서 나와 전동성당 푸른 지붕을 바라보며 팔달로를 건넌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남짓 안에 한옥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3시까지 센터로 복귀해야 한다.

아아~처음부터 대략난감. 길만 건너면 코앞이라 손에 든 '아아'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전동성당 입구 컷을 당한 음료는 잠시 정문 앞 화단석 위에 놓아두고(버린 거 아님, 나올 때 다시 챙김!! 안내원께서 친절함 눈으로 위탁물을 안전하게 봐주고 계셨음. ㅎㅎ) 입장하기로 한다.

전동성당은 이미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어쭙잖은 설명은 필요 없을 듯. 마침 출입을 허용하는 시간 이어서 내부를 살짝 들여다볼 수도 있었는데 사진 촬영은 어려워 눈으로만 실컷 담았다. 부드러운 곡선들 사이를 유영하는 고요. 오래 머무르면 있는 죄 없는 죄 모두 고해하고 싶어질 것 같은 고요, 속에서 슬며시 빠져나온다.



“전주에 신작로가 생기며 풍남문 성벽을 헐자, 전주부의 허가를 얻어 이 성벽의 돌과 흙을 사용하여, 그 돌로는 성당의 주춧돌을, 그 흙으로는 중국인 부 100여 명이 직접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올렸다.”

(전주전동성당 홈페이지)

입구 컷 당했던 음료를 찾아들고 성당과 마주 보고 있는 경기전으로 간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입장료가 천 원이다. 팀장님은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서 3천 원짜리 입장권을 끊었고, 센터장님은 무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당당히 입장료 할인 혜택을 누렸다.

우리는 하마비 → 정문 → 홍살문 → 경기전 정전 → 전주사고 → 예종대왕태실비 → 정문 코스로 짧게 걸었다.



대개 하마비와 홍살문은 짝을 이룬다 하였다. 홍살문은 서원이나 향교, 능 앞에 세우는데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홍살문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 걸어들어가란 뜻으로 하마비를 두었다. 경기전 입구에 두 마리의 동물이 비를 받치고 있는데 바로 하마비다.



전각의 단청을 살피다 보니 처마 밑에 그물을 치기도 하고 탕자나무 가시를 올려두기도 했다. 새가 날아들어 집을 짓고 새똥을 싸지 못하도록 방비한 것인데 '부시(衆愚)'라고 부른단다. 너무 어려운 한자어. 새똥으로 단청이 얼룩지는 건 막아야 겠지만 잠시 쉬러 날아든 새가 탕자나무 가시에 당황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은 그것대로 또 속상하네.



정전 동편에는 줄기가 굽어져 자라는 매화나무가 있다. 그 모습이 용을 닮았다 하여 용매라고 부르는데, 15장의 꽃잎이 겹쳐피는 백매라고 한다. 수년 전 모 방송인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꽃가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훼손 논란이 있기도 했다. 어진 박물관에서 경기전 매화 사진전을 열기도 할 만큼 애지중지하는데...

좋은 건 눈으로만 보자.

용매를 지나 전주사고 앞에서 잠깐 멈춘 걸음은

출입이 제한된 조경묘와 어진박물관 담장을 따라 건다가 되돌아서 예종대왕태실비를 거쳐 정문으로 향한다. 경기전 매화꽃이 필 때 꽃을 보러 와야지.



경기전을 나와 담장을 따라 걷는다. 교동미술관, 최명희문학관, 부채문화관이 연달아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월요일이라 모두 휴관이다. 덕분에 골목골목을 누비고만 다닌다. ㅎ

“사람은 누구라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실패야 한다.”
“살고 난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고 어른들은 말했다.
“앞에서 보면 그럴듯해도 돌아선 뒤태가 이상하게 무너진 듯 허전한 사람은, 그 인생이 미덥고 실하지 못하다.”
고도 하였다.

(<혼불> 7권의 27쪽에 있는 담장 위의 문장들)



최명희문학관 골목에서 나와 경기전 담장을 따라 조금 더 이동하면 하얀 양옥집이 나온다.

한옥마을에서 특 불거진 양옥 외관으로 '양옥집'이라 불리던 도지사 관사가 54년 만에 복합문화 공간으로 5월 하순부터 문을 열었다. 이름도 '하얀양옥집'. 1층은 전시장으로, 2층은 추천도서로

채운 '100인의 서재'로 꾸며졌다는데, 역시 이곳도 휴관이라 정원만 살짝 구경하고 발길을 돌렸다. 아쉬워라.



골장 은행나무길로 접어들니 두 팔을 벌리고 환대하는 노거수 덕분에 달랑달랑 매달렸던 아쉬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전주최씨종대 표지석과 나란히 선 은행나무는 수령 600년을 넘는 노거수다. 전주최씨종대(宗垚)는 최씨 가문이 대대로 살면서 지켜온 터를 일컫는 말이고 은행나무도 최씨 가문에서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주 사람들은 종대 앞길을 은행나무 골목으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 은행나무 어르신만 바라보며 사진을 찍다가 그만 도랑에 풍당 빠져버렸다. 에휴. 맑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어서 천만다행. 아무래도 이 영험한 어르신이 나를 홀린 게지. 운동화며 바짓단을 몽땅 적신 채로 실실 웃음이 난다.



사람들은 참 재미난 작당들을 많이 한다. 은행나무 앞에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구들장논'이 등장한다. '사용자공유공간planC' 옆의 빈터에 만든 논배미다. 애들 장난 같은, 어른 걸음으로 서너 걸음이나 될까 말까한 손바닥 농사다.

작년에는 벼농사를 하더니 지금은 밀밭으로 보인다. 아직 밀이 익으려면 멀었을까? 밀 서리를 생각하며 음흉한 마음을 품는 자가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작당꾼들이 지을 다음 농사는 무얼까 사뭇 궁금해진다.



센터로 복귀할 시간이 코앞이라 공사 중인 이화 고택 앞길을 지나 다시 태조로를 향한다. 걸을 때마다 물젖은 운동화에서는 찰걱찰걱 소리가 나고 공사 차량에서는 삐삐 경고음이 울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관광객들이 쏟아놓은 소란은 몹시 가볍고 경쾌하다. 한복 자락이 스치는 소리, 찰걱 거리는 셔터 소리, 여행자들이 만끽하는 자유로움의 시간이 길을 따라 흘러다닌다.

풍경의 정점은.... 사람일까? 생각하다 걸음을 재촉한다.

(박진이)

진북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

-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치된 도서는 진북생활문화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



교육프로그램 신청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 계획서 및 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대관 신청

대관 가능 일정 확인 후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구분	기준	금액(원)	사용기준
회의·모임 행사	1회	20,000	·기본 이용시간 : 4시간 ·단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기본 이용 시간 초과 시, 매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어울림과 반울림 공간 이용 시에는 별도 협의



편집후기

편집위원장 이지은

2024년 진북생활문화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짓다」는 이름 그대로 지역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번 자료집은 기획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동, 교육 과정까지 다양한 생활문화를 세심하게 담아내며,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허브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생활문화 아지트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된 사업들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지역 자원과 공동체의 힘을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진북생활문화센터가 추구해온 생활문화의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우리생태지킬지도?!>와 같이 환경과 예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지역 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전주산책자>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걸으며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강점으로 인생디자인하기>는 개인의 강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센터의 기획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아지트의 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집은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다양한 활동 결과물을 담아내어 진북생활문화센터의 역할과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참여 사례는 단순히 사업 성과를 넘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센터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료집을 통해 진북생활문화센터의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를 꽃피우는 거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위원 오영석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늘 도움 주시는 센터 직원분들과 열심히 참여해 주신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최태우

2024년 한해도 무사히 마감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다양성과 혁신성이 담긴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

편집위원 강석홍

맑은 하늘이 보고 싶습니다.

뿌연 시야에 꿈틀거리는 희미한 흔적들이 아닌 윤슬처럼 반짝이는 영롱한 푸른빛,
그것은 마치 내내 기다려 오던 바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고 뒤돌아 보는 시간은 언제나 아쉬움 뿐입니다.

그럼에도 내년엔 어떨까? 조금더 잘할수 있지 않을까?

진북생활문화센터 라는 희망 한가득 싣고 달리는 수레바퀴에 정성껏 온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로누림 연극활동을 통해 생활문화에 걸맞는 건설적이고 참신한 소재를 바탕으로 밝은 내일
을 맞이하고 나름 역량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한해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쪼록 마음 한켠에 푸른빛 깃드는 맑은 하늘을 간직 하시길 편집 후기에 실어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발 행 일 2024년 12월 20일

발 행 처 진북생활문화센터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전 화 063-275-0186

홈페이지 <http://www.jeonjuculture.or.kr/jinbuk>

발 행 인 한천수

편집위원 이지은(위원장), 강석홍, 성기석, 오영석, 이윤미, 전성호, 최태우

사 무 국 박진이, 유정연

디 자 인 엘케이디자인광고

2024 진북생활문화센터 “짓다”는 전주시의 보조를 받아 진북생활문화센터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